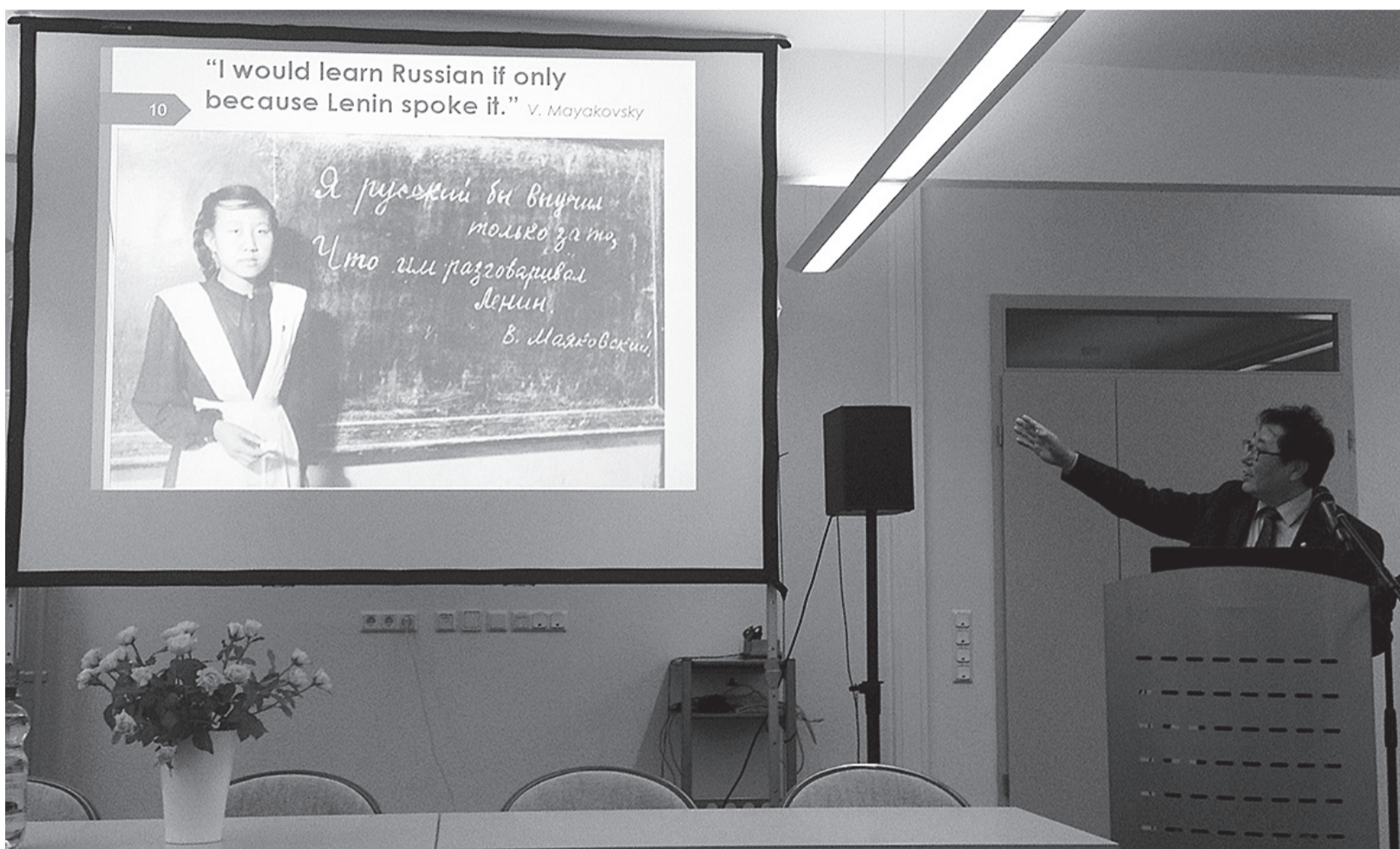


학술대회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 - 기회와 도전”

이것이 2월 중순경 독일의 작은 마을 괴팅겐의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1734년 개교)에서 전세계의 열성적 전문가들과 젊은 학자들이 모여 이틀 간 열었던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학술대회의 주제이다. 이 회의의 특징은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자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사관 그리고 이 학술대회를 조직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준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의 유명한 도서관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다.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중앙아시아, 러시아, 한국, 미국, 오스트리아 그리고 여러 독일 도시들에서 왔다.

학술대회는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 정시영씨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 도서관장 울리케 바이지겔 교수와 도서관 주



관 울프람 호르스트만이 축사를 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알마타의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한국학연구센터 센터장인 게르만 김이 참가하여 «소련 붕괴 전후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국어대학교의 한국학센터 센터장인 벨리 세르게예브나 박은 «

카자흐스탄 고려인과 한국 육진 방언»을 발표하였다. 우수리스크에서 온 극동연방대학교의 알렉산드르 김은 «1930년대 소비에트 한인의 이주와 탄압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와 «연해주에서 고려인의 신문과 출판물의 언어 상황에 대하여»라는 두 개의 발표를 하였다.

고려대학교의 학생 오굴게렉 나자로바는 «투르크메니스탄의 한인»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 기사의 필자도 이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았다. 나는 «우즈베키스탄, 오르스리아 그리고 독일의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학술대회의 조직자로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만주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연구하고 있는 요한네스 레켈

박사는 발표에서 청중들에게 조선족의 2백년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피테 명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안용선 교수는 독일 한인 간호사들의 한국 방문에 대해 보고하였다. 같은 대학교의 젊은 대학원

생 돌프 노이하우스와 여미영은 «일본의 한인 학생들의 일본 기독교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와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온 결혼이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다음 2 페이지

고려신문

한글판의 편집인: 김 발레리아
번역과 감수: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김중헌, 윤상원
기자과 디자인: 김 이리나

학술대회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 - 기회와 도전”

함부르크음악대학교에서 온 미카엘 푸르 박사는 한국 대중음악의 역동적 테마에 감동하였다. 그의 발표는 «초국적 운동과 문화적 융합»이었다. 음악 부문에서는 용애란 박사의 «일본에서의 한인음악가에 대하여»라는 발표가 있

서 종교와 민족학을 연구하고 있는 윤인현 박사와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의 파비아노 프라즈 교수에 의해 발표되었다. «창률 작품의 경계 변화의 심리학적 영향»을 튜빙시의 에빈하르트-칼스대학교에서 온 제르 드 비트 교수

육소희 교수가 마지막 발표를 하였다.

토론에서 회의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대학 도서관에서의 만남의 자리에서 도서관 관계자는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 19세기부터 지금까지 보존해온 고지도와 문서들을 보여주었다.

도서관 건물은 매우 컸다. 그 안에는 교회도 있었다. 이 건축물은 애초에 17세기부터는 단지 학교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재료를 추가하고 보존하여 신축한

도서관으로 가는 도중에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괴팅겐시를 둘러보았다. 주민수는 13만 명이고, 그 중 4분의 1은 학생이다. 젊은 학자들은 도시의 상징 - 그림 형제 이야기의 주인공인 거위를 안은 소녀 리자의 동상이 있는 분수 - 를 우회하지 않았다. 그림 형제는 1830년대에 이 도시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전설에 따르면 새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받침대에 올라서서 학위를 받게 해준대 대해 청동 소녀의 볼에 감사의 키스를 할 수 있었다.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위를 받는다. 때 문에 괴팅겐의 «거위를 안은 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키스를 많이 받는

소녀가 되었다. 발표와 연구결과물로 풍부해진 이틀간의 프로그램은 학술대회 참

서 부분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방언을 수집하기 위한 단일 사이트가 설립될 것이다. 그리고 학술대회 참가자 만



학술대회의 주요 목적은 오늘날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보와 연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공동 작업은 대학교 도서관의 가장 큰 한

자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이것들은 가까운 시일 안에 출판될 것이다. 학술대회의 주요 목

스베틀라나 김 비엔나대학교 대학원생



었다. «탈북자들의 한국에서의 종교 생활»과 «탈북자들의 한국에서의 사회적, 물질적 상황»이 막스-플랑크연구소에

가 발표하였다. 현재 옛 소비에트의 공화국들을 여행하며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연구하고 있는 미국 콜게이트대학교의

교회와 결과물이었다. 오늘날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 대학도서관은 매우 많은 도서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특히 한글 책들이 많다.

마음이 맑을 때 지은 시가 좋은 시다

문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우리의 멋진 도시에서 사람의 창조물은 항상 그의 초상화이다. 바틀레르 에스. 우린 자신의 세계관, 혹은 상상력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관찰한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나 하고 있는 일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 살면서 단 한 번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예술을 통해 말하고자 하였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약간의 재능을 바친 그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멋진 도시에서 시인의 가슴을 지닌 겸손한 사람 한 명이 살고 있다.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친한 친구 몇 명과 가족들이 전부다. 허가이 보리스 미하일로비치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문학과는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시인이자 불리기 마땅한 사람이다. 그는 38년째 그의 마음이 가는 대로 시를 쓰고 있다. 12살부터 그는 우수리스크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 그가 말한다. “나는 62년째 이 도시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는 고미를 가져 13년을 우유 운반 운전수로 일했다. 내 자식, 가족, 친구들을 위해 시를 쓰고 있고, 첫 번째 시는 1978년도에 썼다.” 허가이 보리스 미하일로비치가 쓴 시 중에는 “겨울 방학”, “겨울 숲”, “고백”, “나의 어린 시절” 등이 있다. 많은 잔치들에서 축하 인사를 역시 시로 지어 잔치들을 빛내고 있다.



허가이 시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작에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동네에서 뛰다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 세계,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든 생각과 상상들은 시에 나타날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 연해주 지역에 대한 아름다운 시들도 탄생한다. <모든 사람의 창작물은 항상 자화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마음을 움직이는 것, 마음이 노래하는 것들이 보리스 미하일로비치의 펜에서 탄생한다. 많은 시간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

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가장 평범한 것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찾는 것이다. 재능있고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서 기뻐다. 그는 일이면 일, 예술이면 예술, 집안일이면 집안일, 모든 것에 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보리스 미하일로비치는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다. 허가이 따마라 미로노브나와 3명의 자식, 6명의 손자가 있다. 이 다재다능하신 분에게 영감과 건강을 기원한다. 따찌야나 강

독일의 한인 디아스포라

비엔나대학교 대학원생 스페틀라나 김은 «고려신문»의 독자이다. 예전에 우리는 그녀가 몇 년 동안 성공적으로 주도한 오스트리아의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며 그녀에 대해서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지난번 미래의 젊은 연구자인 그녀는 한인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오늘 우리는 스페틀라나의 새로운 기사를 게재한다. 그리고 스페틀라나 김이 우리의 지속적인 기고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왔다. 한인들에게 이러한 깊은 외상을 남긴 역사적 사건 중의 하나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식민지 점령이었다. 이는 빼앗긴 조국으로부터 대규모 이민

어섰으며, 그 중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유럽에서는 영국 다음으로 독일에 많은 수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알

1963년 12월 16일 서독과 남한 정부 사이에 «서독 탄광에서 한인 광부 임시고용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수천 명의 한인 광부들이 이주하

는 근거가 되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8천명의 한인 광부들이 서독에 도착했다. 협약에 따르면 숙련공들만이 독일에 올 수 있었다. 그러나 협약은 존중되지 않았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단지 중학교

잠시 동안만이라도 외국을 경험해 보려는 열망을 가진 이도 있었다. 집을 떠나 제2의 고향을 찾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쓴 책들이 많이 있다. 지금까지 한인들이 일



자신의 직업을 지켰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8천명의 한인 광부들이 서독에 도착했다. 협약에 따르면 숙련공들만이 독일에 올 수 있었다. 그러나 협약은 존중되지 않았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단지 중학교

만을 졸업했을 뿐이었다. 전문적 경험의 부족은 금방 드러났고, 많은 이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직업을 바꾸었다. 오늘날 예전 광부들은 요리사, 운전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

하여 자기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고 이미 가족도 꾸렸다. 언어와 시스템을 알지 못한 채 낯선 나라에 적응해야 했던 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많은 이민자들은 지금까지도 유럽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지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망한다. **약간의 역사** 세계 경제와 정치에 영향을 미친 침략, 전쟁, 억압, 민족운동 그리고 혁명과 같은 동서고금의 모든 정치적 사건들은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매번 대대적인 이민의 흐름을 가져

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초래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으로의 정치적 망명 이외에도 각각 다른 시기에 남아메리카와 일본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로 노동이민이 실행되었다. 오늘날 한인의 재외동포 수는 700만명을 넘

러져 있다. **독일 땅에 뿌리내리다** 독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수는 현재 약 4만명이다. 독일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때까지 한국의 대도시에서 살았다. 이주한 이들 중에는 학생들도 있었고, 이들은 영주권을 얻어 독일에 남고자 하였다. 이들의 개인적인 동기는 각자 달랐는데, 그들 중에는 스스로 삶을 인식하여 다른 문화를 겪어보고 단지

표트르 볼코프

표트르 볼코프

크림의 고려인 디아스포라

처음에 젊은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몇 년 동안 고국을 떠났다. 그러나 새로운 곳에서 평생 살게 되었다.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한인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주노동자들이나 학생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민족들끼리 결혼한 수가 현

회가 설립되었다. 모국어와 모국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몇 년 동안 고국을 떠났다. 그러나 새로운 곳에서 평생 살게 되었다.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한인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주노동자들이나 학생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민족들끼리 결혼한 수가 현

오늘날의 상황
이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재, 독일의 모든 지역에는 한 인사회가 형성되

대한민국 대사관의 지원으로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열리는 축제, 영화제, 각종 전시회 그리고 한국에서 온 예술가들의 정규 공연이 동포들 사이에서 한국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여름 서울에서 온 예술가들의 한국 전통음악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주요 거주지
많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에 존재하는 특수성은 동포들이 거주하는 지리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한인들은 주로 베를린,

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다. 알다시피 주요 대도시는 보나운 고용기회와 교육환경 그리고 외교, 은행 및



기타 비즈니스 및 문화선교의 존재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온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독일연방 중에서도 한인들이 가장

기에는 1990년대 중반에 벌써 약 8천명의 한인들이 거주하였다. 프랑크푸르트의 한인 디아스포

데, 이는 언제나 매우 인기가 높을겁고 흥미롭게 다. 그런데 그들은 강력한 경제적 유대 공했다. 작년에 한국이 경제적 아버지를 방문하

성장을 이룬 이기 위해 빈에서 래, 독일에는 기아자동차, 현대, 삼성전자, 엘지인터내셔널, 대우전자 등 대기업의 지사들이 설립되었다. 작은 자동차공장에서 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기업 중 하나가 된 현대의 경우에는 독일에 수만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회사의 슬로건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현대를 사고 우리와 함께 세계를 정복하자». 현대의 자동차는 독일에서



고 한인단체, 한인학교, 한글학교, 문화센터, 교

뮌헨,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슈투트가르트 등의 대

집중되어 있는 곳들은 독일 친구들과 전통적인 만남을 가져오고 있는

독일은 우리의 이웃이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하여 젊은 동포들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오나가 된 현대의 랜 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했음에서 수만 명의 종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단결하려는 열망과 그들 안에 있는 애국심을 더욱 느끼고 있다.

스베틀라나 김 비엔나대학교 대학원생